

홀스타인품평회 걸림돌을 제거하라!



조용환 편집장무
축산신문사

한국종축개량협회
가 주최하고 한국낙농
경영인회가 주관한
'2006년 한국홀스타
인품평회'가 지난 18
일·19일 양일동안 농
협중앙회 안성교육원
에서 낙농가 등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다.

농림부·농협중앙회·낙농육우협회·종축개량
산유능력검정중앙회·서울우유·축산신문 공동
후원으로 열린 올해 품평회와 부대행사로 펼쳐진
코리아나세일 및 축산기자재 전시회 등은 참관인
에게 최신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습득하는 장이
되었다.

'품평회를 뜨겁게! 챔피언을 품안에!' 슬로건 아
래 열린 올해 품평회에서 최고 영예의 그랜드챔피
언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2리 69-4번지 앞
동산목장(대표 이웅기·53세)에서 출품한 '앞동산
디사이퍼 236호'가 차지했다.

특히 올해 대회는 연습과 복습을 잘하는 학생
이 우등생이 되듯 그 교훈은 지역 품평회가 활성화
화된 올해 중앙대회에서 여실이 증명되었다.

지역 품평회를 개최한 양주·포천·이천·안성
지역에서 출품된 젖소들은 지역예선을 거치는 과

정에서 순치가 잘 된다 축주의 자세 또한 우수
하여 각부에서 속속 상위 입상했다.

포천이 6개목장(노곡·묵방·미래·근선·은고
개·순해)에서 10두가 상위 입상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양주 3개목장(연산·송라·준이)에서
5두, 이천 3개목장(홍천·모과·송야)에서 4두, 안
성 3개목장(덕창·윤탁·영우)에서 3두로 이 4개
지역에서 상위 입상한 두수는 모두 22두로 전체 36
두 대비 무려 61%를 차지했다.

또 올해대회는 3두 이상을 출품한 목장 가운데
가장 우수한 개체를 갖고 있는 목장주에게 전달하
는 베스트 쓰리 피메일(Best three females)을 신
설했는데 그 주인공은 출품한 5두 가운데 12부에서
최우수와 시니어 준챔피언을 차지한 '노곡 스
노우맨 루돌프 165호'와 11부 우수1을 차지한 '노
곡 시드니 루돌프 177호' 등 상위입상우가 즐비한
포천소재 노곡목장 최명희대표가 수상했다.

또한 코리아나세일에서는 어미성적이 1만kg 이
상, 체형점수 80점 이상인 개체 10두를 사전에 선
정하여 출품해서인지 경매 초반부터 응찰자 사이
1번우 5회, 2번우 13회, 3번우 5회에 걸쳐 경합이
뜨거워져 기본가격 보다 최하 13만원에서 최고 1
백64만원 높게 경락됐다.

최고 경락가격은 구학목장에서 출품한 '구학 에
어로라인 포비트 406호'로 기본가 4백16만원 보다
무려 1백64만원이 많은 5백80만원에 하나로목장

장주석대표에게 낙찰됐다. 올해 경매에 나선 10두는 모두 경락됐으며 그 낙찰가격도 기본가격 대비 두당평균 62만7천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랜드 챔피언 수상자 이웅기대표는 올해로 25년 동안 젓소를 기르면서 그동안 전국규모 품평회에 다섯 번이나 출품을 했지만 각부에서 4-5위에 그친 것이 최고성적이었다 한다. 그런데 이번에 ‘앞동산 디사이퍼 236호’를 통해 11부에서 최우수와 황금유방상을 차지하더니 그 여세를 몰아서 시니어챔피언과 이번 대회 최고 영예의 상인 그랜드챔피언 등 4관왕을 거머쥐었다.

2002년 제13회 북해도종합축산공진회와 2005년 제12회 전일본 홀스타인공진회에서 심사를 맡고 이번에 한국 홀스타인품평회 심사를 맡은 일본 홀스타인등록협회 타카하시 쿠니히로기획부장(58세)은 “그랜드챔피언축은 축주가 인도하는 방향으로 서슴없이 따라올 정도로 출품축이 사람과 교감할 정도로 순치가 잘 되었다”고 평했다.

이미 미국이나 영국·캐나다·일본·화란·덴마크 등 선진국의 출품자들은 거의 90% 이상이 본인이 아니라 처나 딸이 출품축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는 자세로 행사에 임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5회 대회를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축주가 출품축을 인도하는 기술 부족과 자세가 미흡한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간혹 여성이 출품축을 인도하기 위해 심사장에 나오지만 거의 모두는 출품축의 줄을 바짝 잡고 인도해야 하는데 시골에서 외양간의 소를 밖으로 끌어내는 식의 방식이 버려지지 않고 행해지고 있을 정도다.

올해로 네번째 방한하여 품평회를 참관한 (사)제네틱스 훗가이도社 토미 아라키심사팀장(수의사)은 “유방부위·흉심·예각성 등 심사점수가 높은 항목이 거의 비슷할 경우는 털깎기 특히 등선의 털 깎기가 잘된 개체를 선정한다”고 말하고 ‘출품우의 순치와 출품우를 이끄는 보행정도와 자세도 상위 입상축을 가리는 잣대가 된다’고 강조한다.

일본 홀스타인공진회를 1백점으로 기준할 때 한국 홀스타인품평회의 점수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대해 쿠니히로부장에게 질문을 했더니 “운영적인 측면과 수준은 별반 차이가 없으나 상위그룹과 하위그룹간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고 지적했다.

사실 쿠니히로부장은 심사장에서 약 14시간동안 12부에 걸쳐 출품된 2백11두에 대하여 1등에서 꼴찌까지 꼼꼼하게 심사하여 순위를 정하면서 느낀 소감 가운데 대부분의 미경산우는 목 부분이 군살이 없어야 하는데도 너무 많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유방구조와 깊이가 미흡한 개체가 많았으며, 유두배열과 방향이 좋지 않거나 유두길이가 긴 개체가 의외로 많았다는 것이 쿠니히로부장이 밝힐 정도로 아직도 많은 개체가 출품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출품됐다는 것이다.

아무튼 쿠니히로부장이 “행사장소가 노천인 관계로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찌푸린 하늘을 보면서 불안한 심사를 했다”고 토로하고, 아라키팀장이 심사장 가로길이는 어느 정도 되는데 세로 길이가 너무 짧아 심사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도 지적했듯이 이 행사를 주최하고 주관하는 한국종축개량협회와 한국낙농경영인회는 앞으로 중앙정부 등과 협의하여 국제적인 규모를 갖춘 실내행사를 하나쯤 건립했으면 한다.